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10-16	제2독서	히브리서 9:24-28	복음	마르코 12:38-44
--------	------	--------------------	------	-----------------	----	-----------------

가난한 과부의 큰 헌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총 주시려 우리를 불러모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表裏不同) 그들을 단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율법학자들이 훗날 하느님 나라의 법정에서 엄한 선고를 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의 헌금함을 보십니다. 그 헌금함 곁에는 사제들이 서서 봉헌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봉헌물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큰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봉헌하는 재물과 돈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봉헌을 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이 과부는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 때 사렙타의 과부처럼 먹고 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렘톤 두 닢을 집어넣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 ‘렘톤’이라는 단어는 보잘 것 없는 돈, 부자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돈을 가리킵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손을 탈탈 털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봉헌을 많이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를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과부는 자기 자신은 가난하더라도 하느님만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셈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ANAWIM)의 딸이 어떻게 복음을 삶과 연결하여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전건립을 중에 있는 저에게 특별히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건립 후원을 받아 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모은 정성을 아무도 모르게 봉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정말 개인적이면서 지극히 복음적인 봉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신 지향에 따라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였고 눈물을 삼킨 적도 많습니다. 그러한 미사와 기도 안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분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헌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이자 사랑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신앙과 정성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난한 과부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 또한 하느님 안에서 성전건립을 위해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을 보며 복음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34)는 그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며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김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1월 12일(화)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108.00 \$ 5,360.00
11월 13일(수)	성녀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동정 기념일	오전 8시	성 물 방 자 선 비	\$ 21.00 \$ 358.00
11월 13일(목)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미사예물	\$ 338.00 \$ 936.00
11월 14일(금)	연중 제32주간 금요일	오전 10시		
11월 15일(토)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8,121.00
11월 16일(주일)	연중 제3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4명 성인: 152명
교무금 봉헌자	김수용, 오영자, 김경숙, 이유빈, 최준우, 윤수용(11-12) 송동희, 고원석, 최병진, 신희재(10-12) 강대현(7-12) 윤형근(10-11) 황원호, 안선미, 김이진(9-10) 안성수(8-10) 김옥동(7-9) 김호성, 김창현(10) 김영숙, 김순애, 지중원, 김규철, 박원상, 성영진, 김상돈, 김평옥, 김규대, 지복원, 조영주, 조영숙(11)			

이 단어의 뜻, 확실히 알고 싶어요.

꾸리아, 꾸르실료, 울뜨레아...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들어 본 단어입니다. 하지만 또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꾸리아(Curia)

교구청, 교황청 등을 일컫는 말이며 또한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 가운데 하나를 칭하는 단어인데요. 레지오 마리아에서 사용하는 ‘꾸리아’는 지역이나 본당에 둘 이상의 뵤레시디움이 설립됐을 때 그 관리 기관으로서 설립하는 평의회 조직입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모이는 ‘꾸리아’도 있습니다. 이 ‘꾸리아’를 처음 듣는 이는 ‘신부들이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교구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꾸리아는 원래 고대 로마의 행정 단위 중 하나를 부르는 명칭이었는데요. 이 꾸리아마다 집회소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을 의논하곤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꾸리아는 행정 단위를 말하는 말보다는, 집회소를 부르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구마다 교구 행정을 담당하며 재판을 여는 행정청을 개설했는데 이를 ‘꾸리아’라고 불렀고,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꾸리아라는 말은 교구청을 가리키는 단어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교구 꾸리아, 즉 교구청(Curia diocesana)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뵤레시디움

뵤레시디움은 레지오 마리아의 기본 단위의 조직이며 라틴어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로마 군단의 파견대를 의미합니다. 뵤레시디움의 간부는 영적 지도자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로 구성되는데요. 영적 지도자 외의 간부 4명은 꾸리아에 보내는 뵤레시디움의 대표자들로 그 첫째 임무는 다른 모든 단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통상 활동 의무를 채우는 것입니다.

꾸르실료(Cursillo)

스페인어로 ‘과정·코스(course)’를 뜻하는 ‘Curso’와 ‘짧다(short)’는 의미의 접미사 ‘-illo’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 ‘단기과정(a short course)’이라는 뜻인데요. ‘짧은 시간에 갖는 회심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후안 에르바스(Juan Hervás) 주교의 제의하에 평신도인 에드워드 보닝(Edward Bonning) 형제 등이 창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5월 필리핀의 카이모 형제 등 12명이 서울에 와서 이 운동을 전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꾸르실료’라고 할 때에는 꾸르실료 3박4일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지만, ‘꾸르실료운동’이라고 할 때에는 꾸르실료 이전, 3박 4일의 꾸르실료, 꾸르실료 이후를 모두 포함합니다.

‘꾸르실료’의 정식 명칭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꾸르실료운동’으로 꾸르실료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꾸르실료운동이 ‘환경(세상)의 복음화’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가진 교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꾸르실료운동은 그 자체가 지닌 고유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음적 삶을 통해 각자가 속한 환경을 복음화하게 합니다.

울뜨레아

꾸르실료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을 ‘꾸르실리스따’라고 부르며, 울뜨레야는 3박4일간의 꾸르실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으로 사회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꾸르실리스따들의 모임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생활화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우정을 나누기 위한 꾸르실료 운동의 모임입니다.

(가톨릭 신문, 가톨릭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아들 Shawn Hovey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연	김병길 베드로 영혼	김명희 수산나 가족	생	유정임 가브리엘라, 김일주 안나 영육건강	주동숙 모니카
연	구본승 베드로, 구희용 엘리사벳 영혼	구준모요한, 구비아			
연	양한욱 요셉, 박주성, 주영만 김현순 영혼	윤재경 알베르도	생	Shawn Hovey 영육건강	진엘리사
연	함영순 마리아 영혼	최정신 데레사			
연	이춘실 마르코 영혼	오민정 크리스티나			
연	윤태욱 안나, 남필레 마리아 영혼	이나숙 데레사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 이번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미사와 기도에 충실합시다

1. 본당 꾸리아

일시: 10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뵤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2. 본당 사목회

일시: 24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 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구역모임 및 단체활동

2구역: 10일(주일) 9시미사후 야유회
6구역: 23일(토) 오후5:30 김상범 히지노(덕)
17일(주일): 교중미사후
5구역(데레사방) 7구역(마태오방)
8구역(요한방) 9구역(루카방)

복지부: 23일(주일) 오후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30일(토) 오후3시 홈리스음식준비/모임

4. 청년부, Christus 피정 Reunion Mass 참가

일시: 16일(토) 오후3시
장소: 오클랜드 성당
주요내용: Reunion Mass, Dinner, Fellowship

5. 사랑의 급식 안내

- 1) 11월17일 (주일): 10구역
메뉴: 카레 금액: \$5
- 2) 11월24일 (주일): 김명희 수산나
9/24 선종하신 김병길 베드로 형제님의
유가족(김명희 수산나 가족) 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점심을 제공합니다.

6. 공소부, 리노공소 기금마련 활동

- 일자: 10일(주일)
- 1) 고추장, 된장 등 판매 (산호세 성당)
 - 2) 단감 판매 (본당 친교실)
- 금액: 1봉지(35개) \$10

7. 감사합니다.

미사예물: \$936.- (본당신부님 도네이션)
사랑의급식(여성부-성모회) 수익금: \$175.-

8.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미사 안내

28일(목)~29일(금) 이틀간 평일미사 없습니다.
*** 30일(토) 특전미사는 있습니다.

9. St. Mary Cemetery 한국세션 Promotion 안내

기간: 10/27~11/30 까지 (5주간)
내용: 프러모션 기간중 특별 할인 판매
문의: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 복사단 상시모집중: (문의) 복사단장 장현철 엘리야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전례봉사	연중 제32주일 (11/10)	연중 제33주일 (11/17)	그리스도왕대축일 (11/24)	대림제1주일 (12/1)	
미사해설	지혜진 / 최금주	김아영 / 김진영	박문교 / 정미정	곽유경 / 조용주	
독서	9시	김주영 / 김원민	허준희 / 김가연	제임스 / 윤지명	지마리 / 임가빈
	11시	김규철 / 김희정	윤재경 / 윤은실	임정남 / 양방림	안강순 / 이서향
복사	9시	황건영 / 박예진	지마리 / 임가빈	김노아 / 김가윤	허준희 / 김가윤
	11시	김영준 / 권오승	최준우 / 윤지현	김규철 / 최준우	송동희 / 김영준
헌금위원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천상의 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업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업(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부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